

대한사진예술가협회  
창립75주년기념  
전국회원 사진작품집



75

# 대한사진예술가협회 창립 75주년기념 전국회원 사진작품집 출간에 붙여.

대한사진예술가협회회장

김호영

대한사진예술가협회가 1945년 9월에 “조선사진연구회”로 창립되었으니 2020년에 75회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는 75주년을 맞이하는 2020년에 본회와 전국 분회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창립기념 합동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작품집을 출간하며, 회원 모두가 모여 함께 축하하며 내일을 다짐하는 행사를 계획하였다. 이를 위하여 2020년 12월에 전시장을 예약하는 등 전시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나 2020년 정초부터 시작되어 아직도 전 세계를 공포와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을 중지하는 아픔을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겨야 했다. 창립 75주년 전국 합동 사진전시회를 개최치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려는 생각으로 찾은 차선책이 “대한사진예술가협회 창립75주년기념 전국회원 사진 작품집”을 출간하는 일이다.

우리 협회의 선배님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5년에 창립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회원 사진전은 물론 “조선예술사진전람회(전국사진공모전)”를 개최하였으며, 6.25 한국전쟁 중인 1952년에는 “합동예술사진전 (대한사진예술연구회, 부산사진예술연구회 공동사진전)”을 1953년에는 “대한사연회원전”을 피난지인 부산에서 개최하였다. 이러한 선배님들의 사진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시회를 못하고 사진 작품집 출간으로 대신하는 일과 비교해 보면 후배들이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현재 상황이 부끄럽다. 그러나 어찌하랴, 차선책으로 만드는 작품집만이라도 알차고, 창립 75주년 기념으로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이다.

지난 2년 서울 본회는 “서울”이라는 공동 주제로 작품을 만들어 전시하고 작품집을 출간하였으나, 이번은 전국 모든 회원이 참가하는 만큼 출품 작품은 미발표 자유주제이며 회원 1인 1점으로 정하였다. 피에르 솔라주(Pierre Soulages)는 사진의 피사체를 정신적이고 형이상학적이며 철학적인 촬영할 대상, 물리적이고 기술적으로 포착된 촬영된 대상과 관람자의 측면에서 지각과 사유 과정을 통해 받아들이는 사진적 대상으로 구분하였다. 자유주제란 작가가 자유로이 정한 형이상학적인 촬영할 대상과 물리적으로 촬영된 대상을 작품으로 만들어 발표한 것이나, 이에 대한 평가는 사진적 대상인 작품을 관람자의 눈과 마음을 통해 다양하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며, 이러한 수용의 다양성이 예술사진이 포함하고 있는 본질일 것이다.

비대면의 어려운 여건에도 전국 회원들의 적극적인 출품에 힘입어 주옥같은 예술사진 작품이 90여 점 모였으며 이에 기념사진집으로 선보이게 되었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 마음껏 못하는 지난 2년의 어려움 속에서도 좋은 작품을 출품해 주신 회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려움이 크면 그 뒤에는 꼭 기쁜 날이 온다는 말을 믿으며,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을 되찾아 회원전도 성대히 개최하고 촬영회도 하고 월례회도 마음껏 하는 날이 오기를 모든 회원들과 함께 고대해 본다.

2022년 1월

# 불멸과 덧없음의 '이자 관계(dual relation)'

시각예술 평론, 대한사협회원

김석원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쌓으며 다지는 것보다도 비우는 것이 더 중요할지 모르겠다. 생의 중심으로 진입하기 위한 과정에는 후련하게 지우고 없애버릴 것들이 발생하기에 그렇다. 하지만, 머릿속의 안 좋은 기억을 데이비드 린치(David Lynch)의 영화 이레이저 헤드(Eraserhead, 1977)에 등장했던 지우개로 모두 깨끗하게 지울 수 있을까? 지워지지 않은 기억은 무언가 마음 한구석에 웅크리며 도사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 불현듯 나타나기도 한다. 이처럼 비움, 기억, 기억해 냄을 전부 포괄하는 개념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불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밀란 쿤데라(Milan Kundera)의 소설 '불멸(Immortality)'에서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 괴테(Goethe)와 나폴레옹(Napoleon)의 만남처럼 - 서로 교류하기도 현실과 소설이 섞여 있기도 하다. 이런 사례는 무수히 많이 등장하는데,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시, 공간을 뛰어넘어서 교류를 하는 행위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으나, 이 책에서 의미하는 '불멸'의 관점에서 보면 살아 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만남, 혹은 시대를 달리해서 죽은 사람들이 교류하는 것은 어색해 보이지 않는다. 쿤데라는 불멸을 '작은 불멸'과 '큰 불멸'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작은 불멸'은 한 개인이 생전에 알고 있는 사람이 '죽음/멸(滅)' 이후에 마음속에 남아 있는 추억이라면 '큰 불멸'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의 죽음이 아닌, 공론화되는 인물에 대한 추억이다. '작은 불멸'이 부모, 자식, 남편 등 개인사에 해당한다는 '큰 불멸'은 공적인 차원에서 역사에 남는 위인 같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처럼 쿤데라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소설을 통해 실존의 주제를 추적하려고 하며, 그런 과정은 '무형식의 형식'을 통해서 드러난다.

‘불멸’을 사진의 문제로 생각을 좁혀보면, 대한사협 75주년 사진은 ‘시간’이란 주제를 통해서 자신들이 느꼈던 순간의 감흥을 드러낸다. 사진은 감성적이며, 지성에 호소하는 부분이 큰 매체로서, 사진작가는 자신의 열정을 사진 만들기에 사용한다. 이런 행위는 무언가를 더하지 않고 주로 무엇을 빼내는 감산을 통해서 ‘심리적 형성물(psychical formations)’을 사진으로 담아낸다. 어쩌면 기억을 만드는 것과 사진을 만들어내는 것의 간극은 어떤 차이점이 없는지도 모른다. 과거란 기록을 통해서 볼 수는 있지만, 현존하지 않음을 사진은 지속해서 설명한다. 하지만, 현존하지 않는다고 교감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 교감의 방식은 쿤데라의 소설 ‘불멸’에서 괴테와 나폴레옹이 서로 다른 시간의 차이를 두고 교류했다면, 사진의 경우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는 <밝은 방, Camera Lucida, 1980>에서 ‘제롬 나폴레옹의 사진’의 ‘푼크툼(Punctum)’을 통해서 ‘바르트/관객’은 ‘심리적 텔레파시’로 교감한다.

사진은 특별한 순간적인 감정들로 나뉘어 지기도 하고, 생략을 구사하며 다소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특별한 순간들은 긴 호흡으로 지연시켜서 뛰어난 리듬을 만들어낸다. 사진작가 개개인의 까다로운 감성은 대한사협 75주년 사진 그룹전 성격의 전시회에서 오케스트라처럼 사진의 구성을 음악의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더군다나 사진가들은 사소한 일상 속에서 ‘죽음(존재의 부재)’를 넘어선 ‘불멸의 미학’을 끌어내려는 의지를 지닌다는 점에서 모더니스트라고 부를 만하다. 그렇다고 그들이 ‘불멸’의 ‘잔여물(殘餘物)’을 직접적으로 지시하지는 않는다. 관객은 오히려, 지나간 시간의 흐름을 마주하며 각성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사진은 그 장소를 찍었지만, 지금은 현존하지 않는 바람결에 흩날리는 시간의 흔적으로 변해버린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과거의 그 시절은 지나가 버렸으며, 그때의 모든 것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덧없음’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덧없음’은 단순히 ‘의미 없음’이 아니라 다른 관계로 복원하기 위한 휴지기(休止期)의 ‘공백(void)’과 같다. 사진으로 구성된 화면은 바로 그 지점을 향해 가고 있다.

쿤데라는 “불멸은 덧없는 환상이요, 깨어진 말(言)이며 나비 채를 들고 쫓는 바람의 숨결이다”라고 표현했다. 이처럼 문학적으로 표현한 사라짐의 현상을 붙잡으려는 ‘불멸의 정신’은 실존과 환영, 실재와 부재 사이의 ‘공백’에서 사진은 부유한다. 이러한 모호한 지점은 사진에서 포착한 시간성이 반드시 일직선, 연대기적이지 않으며, 특정한 순간이 ‘유예’한 사실을 의미한다. 쿤데라가 ‘불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소설가가 자기 작품보다 더 똑똑하다면 그런 소설가는 직업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사진에 적용하면 사유의 주체가 ‘저자/사진가’가 아니라 사진 자체로서 살아서 생각하는 어떤 존재로 생명화되는 것이다. 사진은 과거를 자꾸 되돌아보는 누군가에게는 영원히 생명을 간직한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관객은 사진을 바라보면서 ‘불멸’과 ‘덧없음’은 라캉(Jaques Lacan)의 언급처럼 ‘이차 관계(dual relation)’<sup>1</sup>가 되어 자신과 연관됨을 되새기는 안내자 역할을 하게 된다.

<sup>1</sup> 이차 관계는 라캉이 언급한 정신분석 용어이다. 아이와 어머니라는 이차관계(dual relation)를 의미한다. 여기서 언급하는 이차관계는 ‘불멸’과 ‘덧없음’의 관계로서, 아이와 어머니의 관계처럼 친근하다는 의미로 사용했다.

서울  
본회



곽윤섭  
un momento  
쿠바, 2016



권병준  
Brilliant Sunset (찬란한 일몰)  
공주 청벽대교,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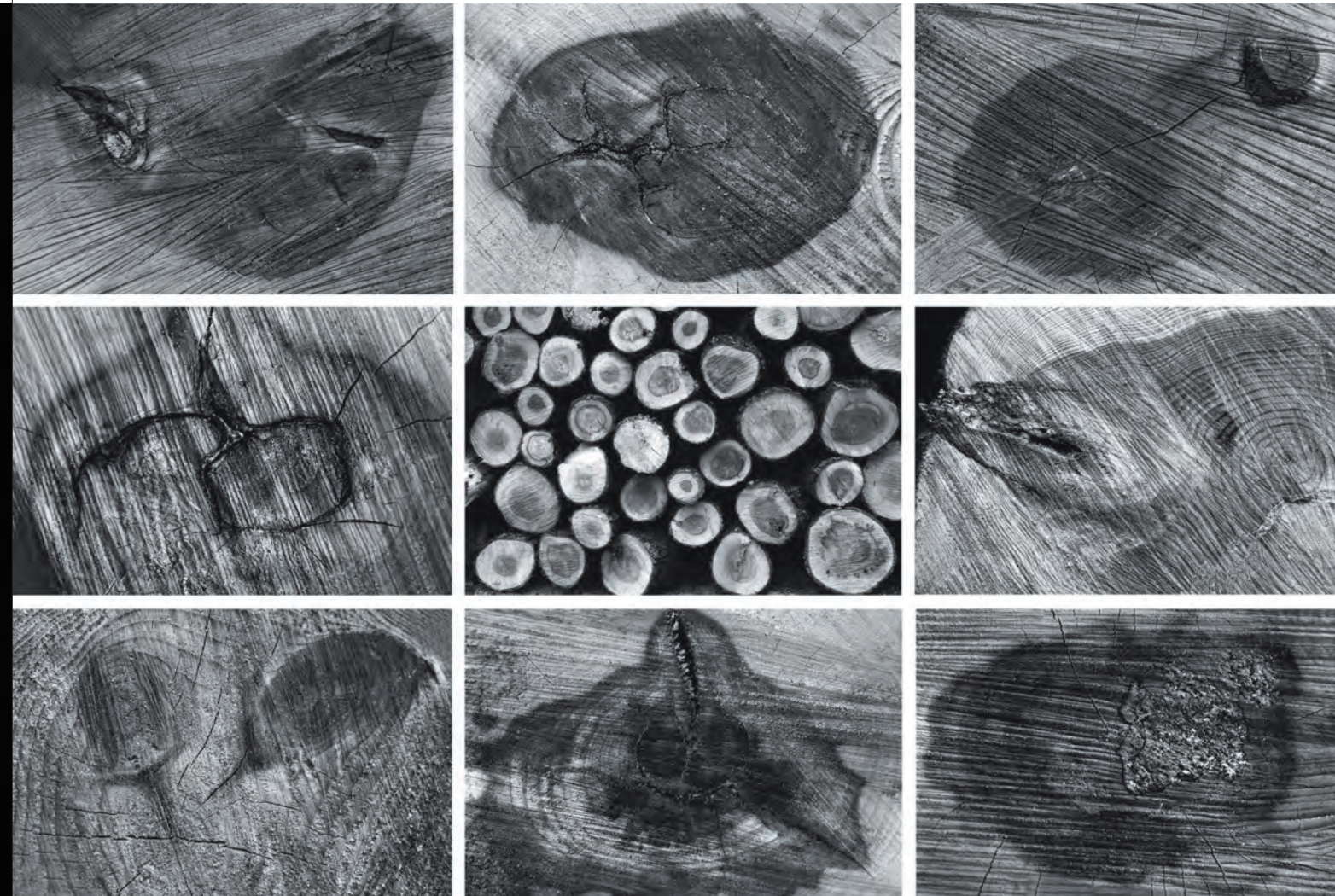
권정열  
저 하늘의 별을 찾아서  
전남 강진군 병영성, 2021



김규태  
무제  
서울, 2015



김기훈  
 빛과 물이 흐르는 공간에서  
 홍제유연(유진상가 문화공간), 2021



김완기  
 나무 속 표정  
 한국민속촌, 2014



김인경  
석양  
중국, 인도, 2016



김재현  
여정  
강원도, 2014



김종범  
하늘에서 본 갯벌  
전남 신안군, 2021



김지영  
강원도 고성읍바위 일출  
강원도 고성읍바위, 2016



김태은  
자화상  
서울경마공원, 2011



김평기  
흔적  
고양시, 2017



김필연  
Northern Lights & The Big Dipper (오로라와 북두칠성)  
Grindavik, South of Iceland, 2020



김호영  
COVID-19  
마산, 2020



김희득  
덕유산 상제루  
덕유산, 2020



문용백  
할(喝)  
수덕사,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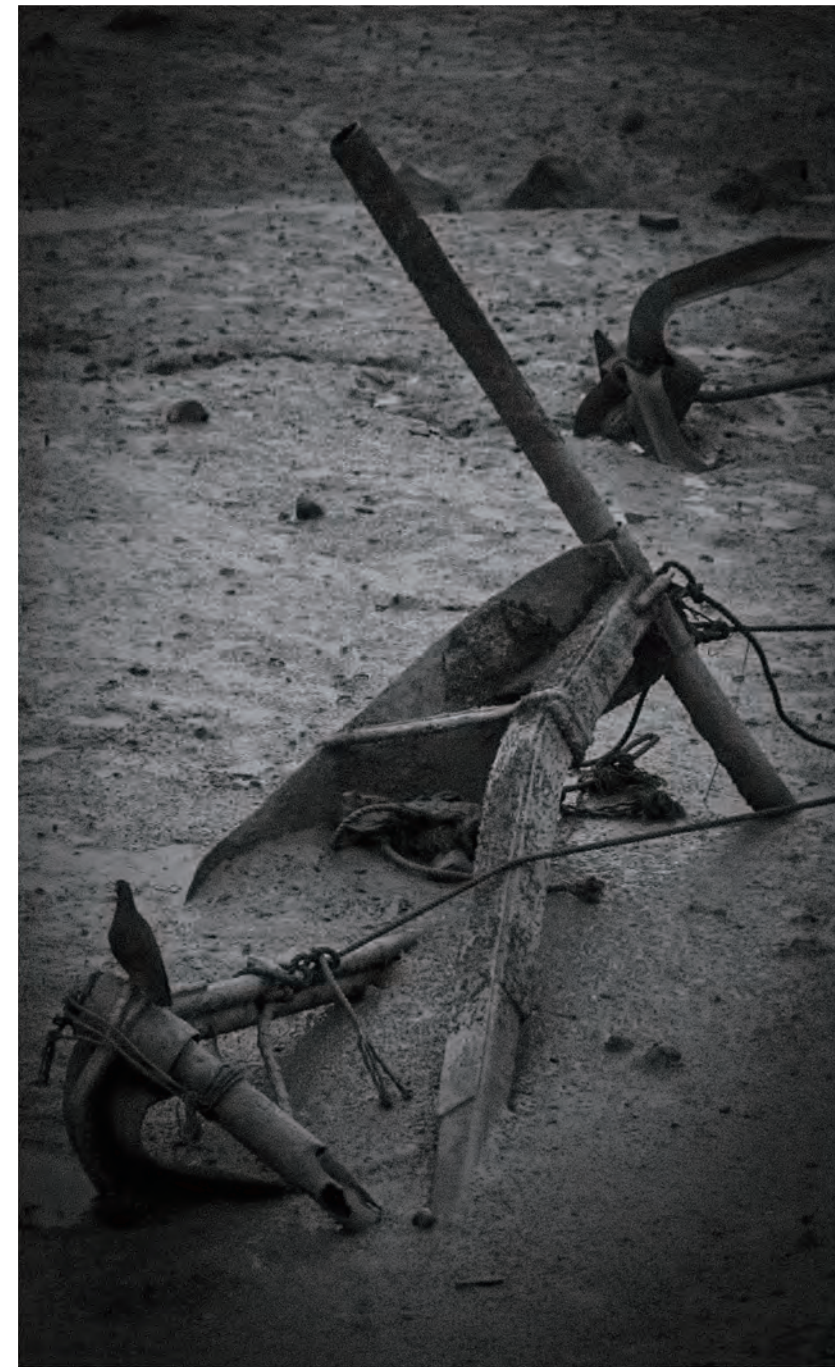
박복규  
아쉬움  
엔젤로프 캐니언, 2017



박부공  
삼배 (三拜)  
해남 대흥사, 2011



박태균  
연구를  
관곡지, 2012



須令我目復光明(수령아목부광명) 나의 눈을 다시 밝혀 주시옵소서  
願至餘年死寢醒(원지여년사침성) 원하옵기는 사망의 잠에서 깨워 주시옵소서  
傾跌諸愆前後在(경질제건전후재) 모든 허물이 앞뒤로 있어 얹어질까 하오니  
切祈拯救以恩成(절기중구이은성) 간절히 구하기는 풍성한 은혜로 구원해 주옵소서  
主後二千二十又一年三月卅日鄭駿謨先生詩朴泰正  
(주후 이천이십우일년 삼월 삼(삼십)일 정준모 선생 시 박태정)

主後二千二十又一年三月卅日鄭駿謨先生詩朴泰正  
遂生切祈 拯救以恩成  
餘年死寢醒 傾跌諸愆  
須令我目復光明願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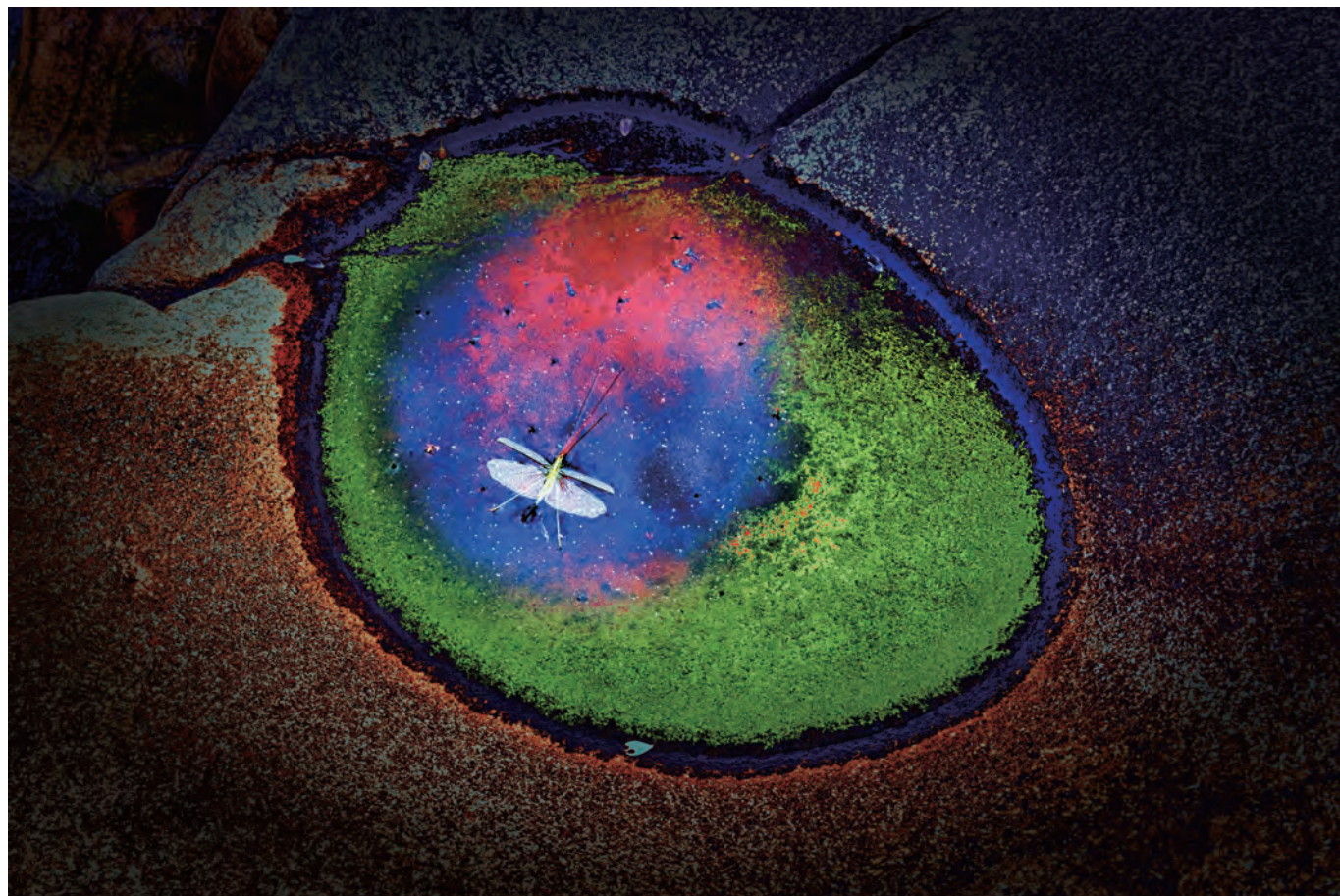
박태정  
영혼의 닻(The anchor of the soul) 2021-01  
인천 북성포구, 2015(사진), 2021(서예)



변상복  
황혼 길  
네팔, 2014



변성진  
BORDER  
서울, 2020



설인선  
Dream  
영월 요선암, 2020



소은희  
화엄(華嚴)  
봉은사, 2018



송형섭  
 사라지는 것들  
 서울 잠실 진주아파트, 2019



송희경  
 그대, 항상 거기 있어라.  
 한강 마포대교, 2017



신동연  
초가  
경주 양동마을, 2010



신현순  
Still Life  
서울 장위동, 2020



안미숙  
코로나풍경  
행주대교, 2021



안장현  
삼인당(三印堂)  
선암사, 2021



오용국  
내가 지킨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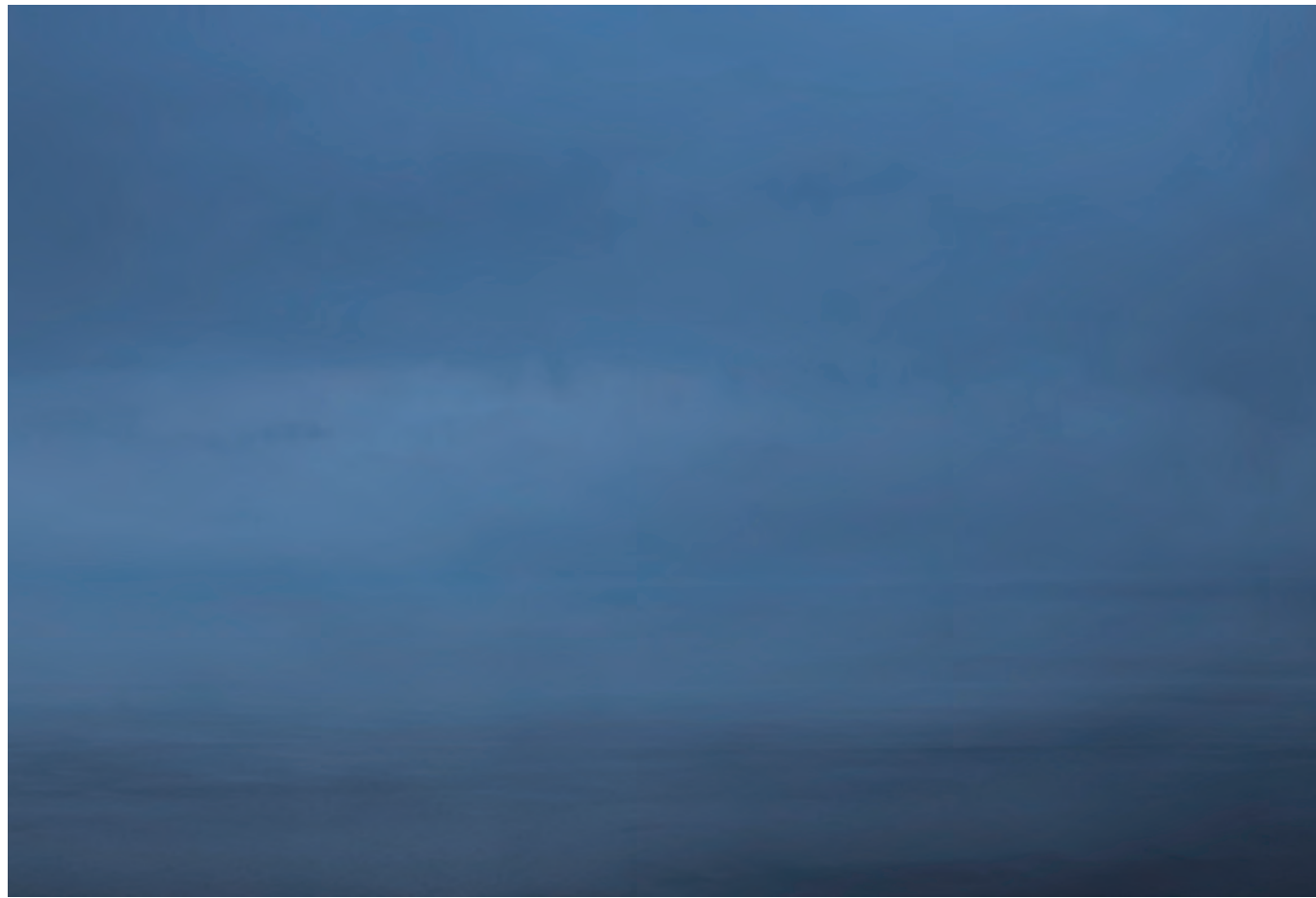
위성혜  
제주  
제주돌문화공원, 2021



유재연  
공존  
도라산전망대, 2020



윤홍기  
한여름밤의 꿈  
성동구, 2021



**이강봉**  
버림(Abgeschidenheit)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2020



**이경자**  
또 한번의 기회가오면  
인도 영불탑, 2010



이경훈  
태초의 고요  
일본 북해도,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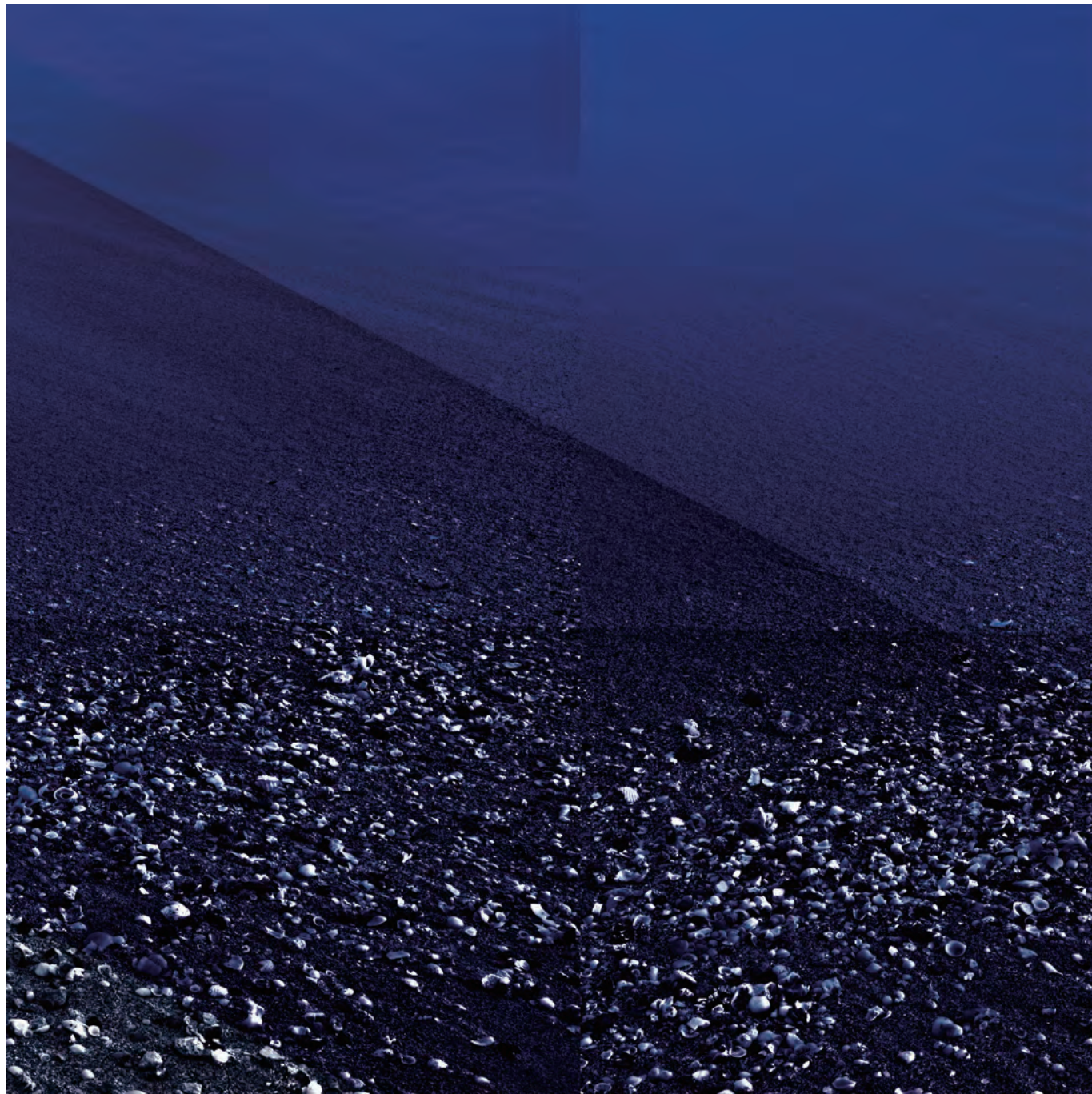
이동준  
소통의 장소  
경기 화성시 조암시외버스터미널, 2019



이상태  
희정당(熙政堂)의 햇살  
창덕궁, 2015



이인수  
풍경  
도봉산 축전사 가는길, 2017



이철집  
바닷가 재구성  
주문진, 2019



임경식  
휴(休)  
창원 주남저수지, 2014



장영도  
미술관 데이트  
강화도 해든뮤지엄, 2021



전부순  
종묘제례  
종묘 정전, 2017



정건영  
여명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2012



정명용  
동상이몽  
서울 용산, 2019



주원상  
COVID-19 \_ 2021  
서울 강남역, 2021



진영갑  
빗속의 연인  
경기도 양평, 2016



최병호  
두루미의 비상(飛上)  
철원 동성, 2018



최영주  
SEA  
속초, 2019



허애영  
염화미소(拈華微笑)  
서울 종로구 구기동 북한산 승가사, 2005



황윤제  
나를 찾아줘  
서울 이태원, 2020

# 대전 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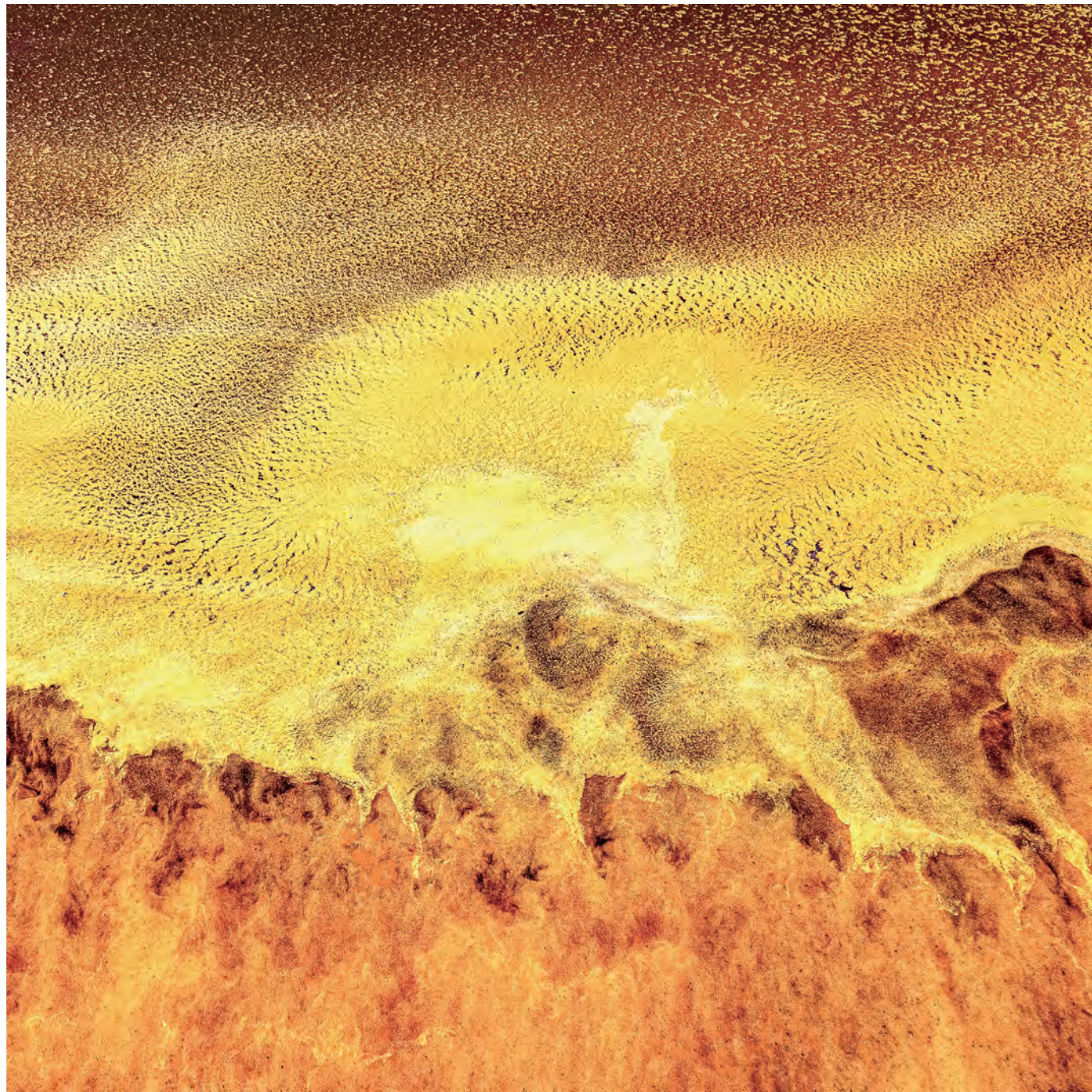


김재국  
습  
전북 순창, 2021



J.M.

김재근  
심폭  
계룡산,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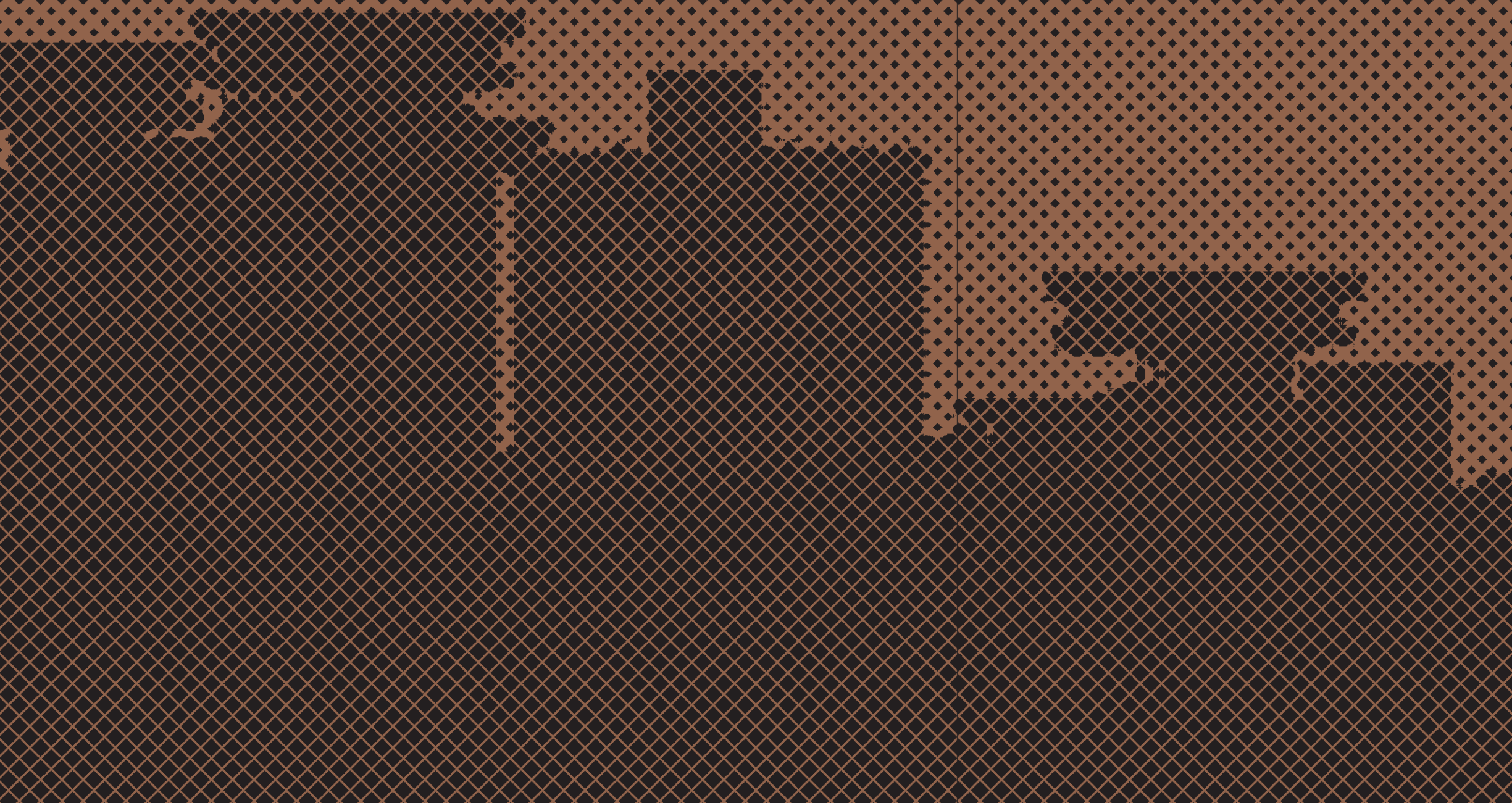


송양웅  
송화분도  
대전 추동, 2021



유병주  
흥덕왕릉 송림  
경주, 2019

# 부산 지회





강호경  
기다림  
서울 여의도, 2021



김무상  
心  
태국 치앙마이,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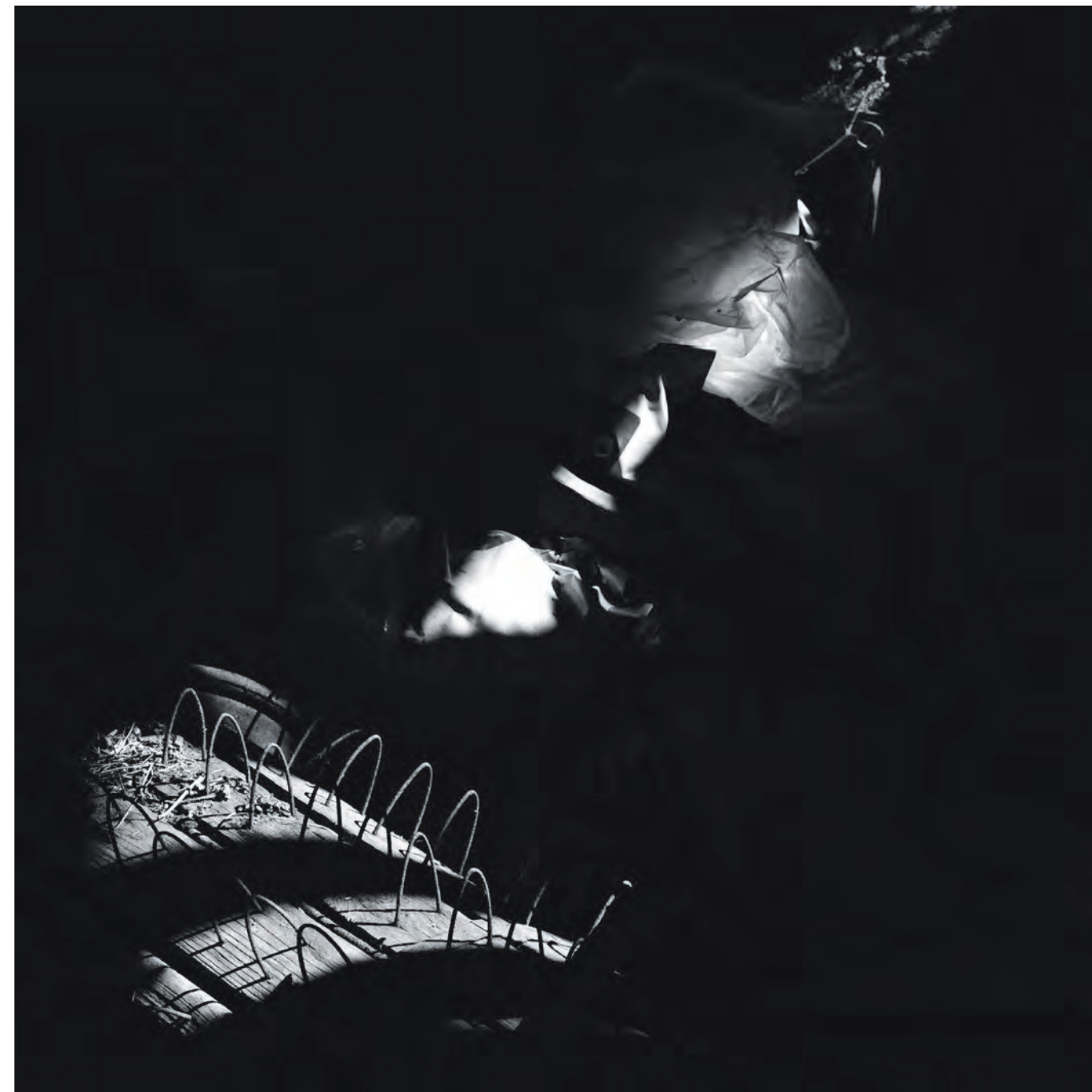
김추영  
생의 한가운데  
해인사 소리길, 2018



김효숙  
하얀 그리움  
일본 하코다테, 2018



**Michael Kazemi**  
평온(Tranquility)  
부산 해운대, 2021



**서영인**  
오래된 기억을 깨우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2020



신승우  
관람  
단양, 2019



이정일  
매화  
김해건설공고, 2017



정기형  
장기일출암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리, 2020

# 대천 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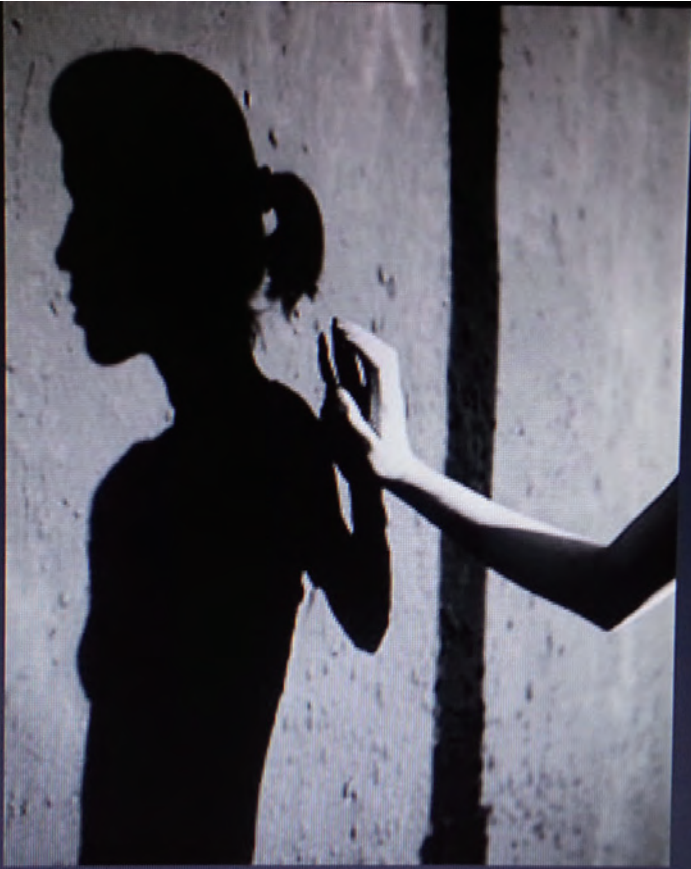




김상철  
주작산 춘설  
주작산 강진, 2018



김용일  
폐선  
보령 오천면 영보리,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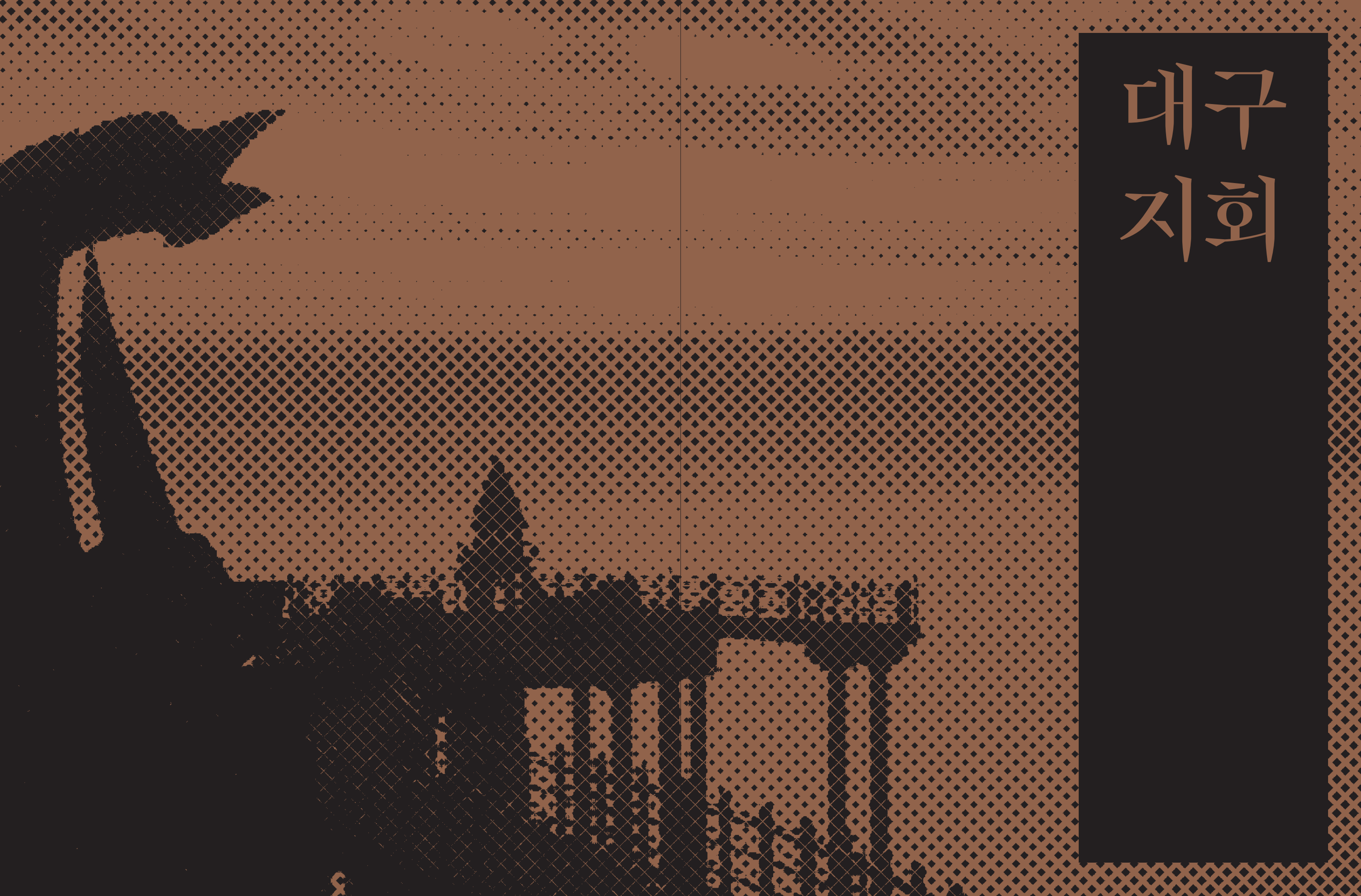


박인용  
기다림  
대천, 2021



Photo Artist 111

신영섭  
하늘과 땅 그리고 나  
지리산, 2018



# 대구 지회



권정태  
낙안읍성  
낙안읍성, 2020



박영달  
수목화  
거제도 연담호수, 2021



서무홍  
꿈  
거창 가조면, 2021



양재영  
신명  
팔공산다원문화연수원, 2016



오철수  
선비집의 난  
대구, 2021



이재근  
구절초의 새벽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2017



이재천  
태풍의 흔적  
포항 이가리,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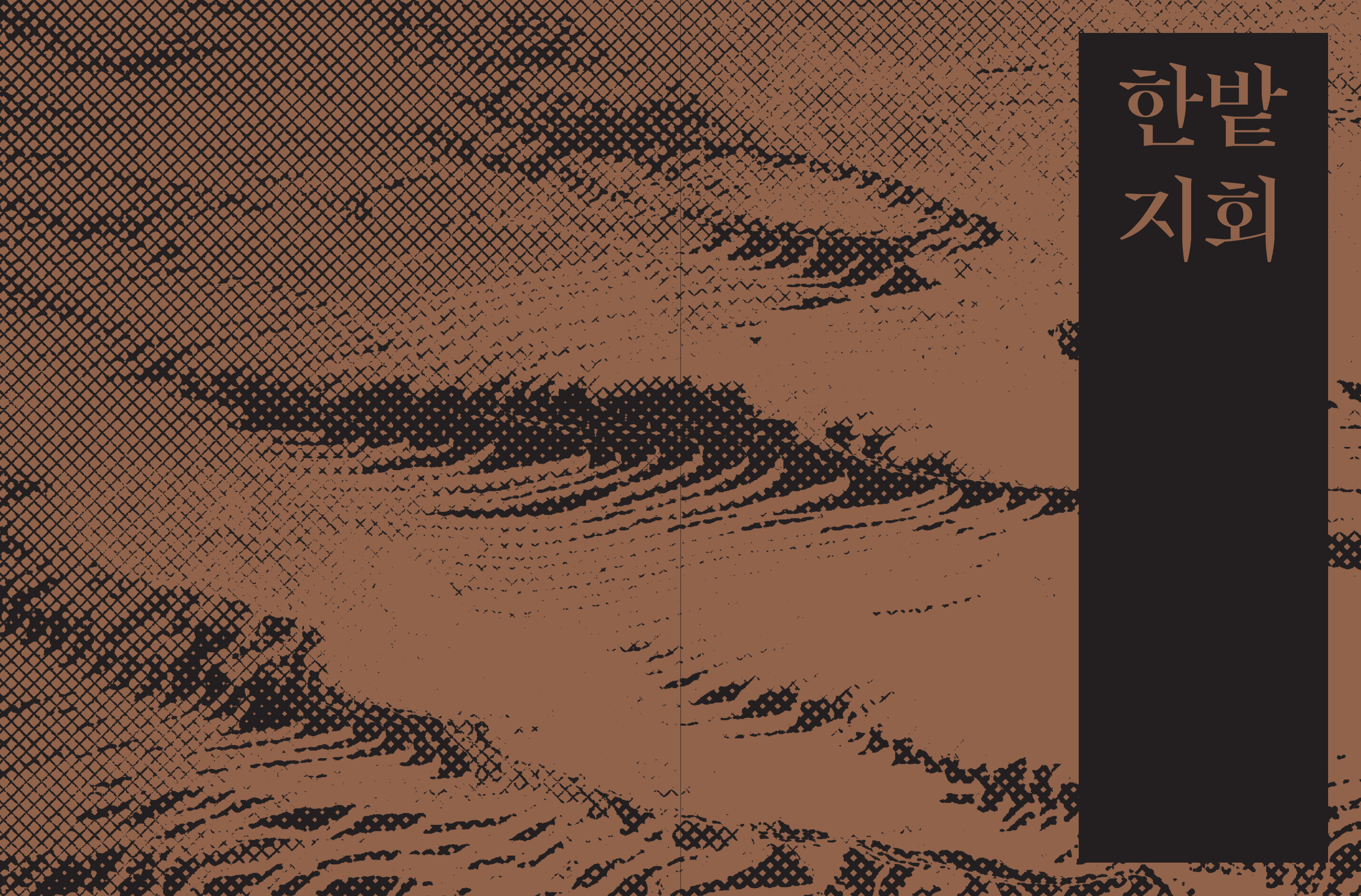


전광신  
이가리 닷  
포항 북구, 2021



정황영  
휴식(休)  
삼척 상동 이끼계곡, 2021

# 한밭 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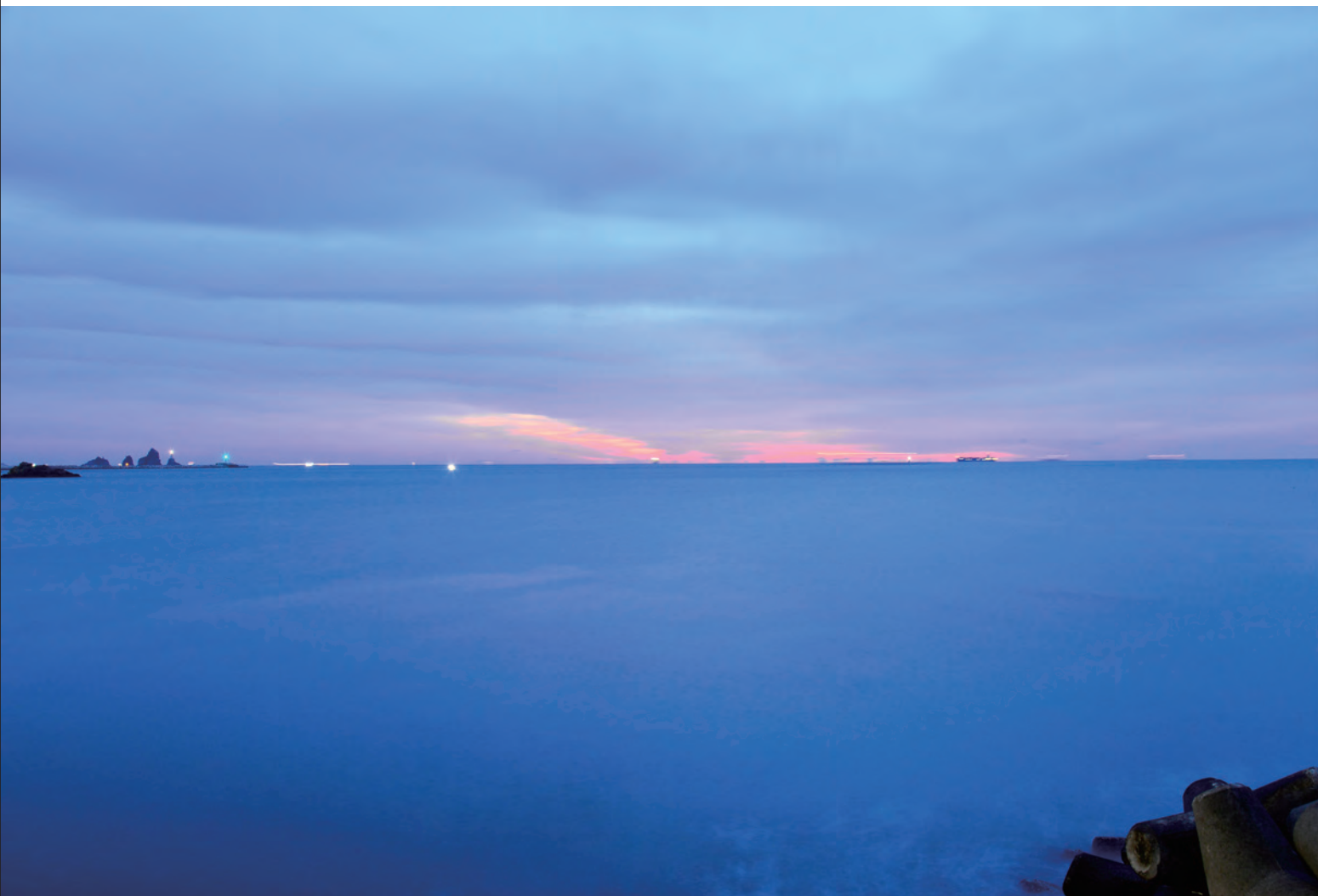




김용현  
봄치녀  
덕유산,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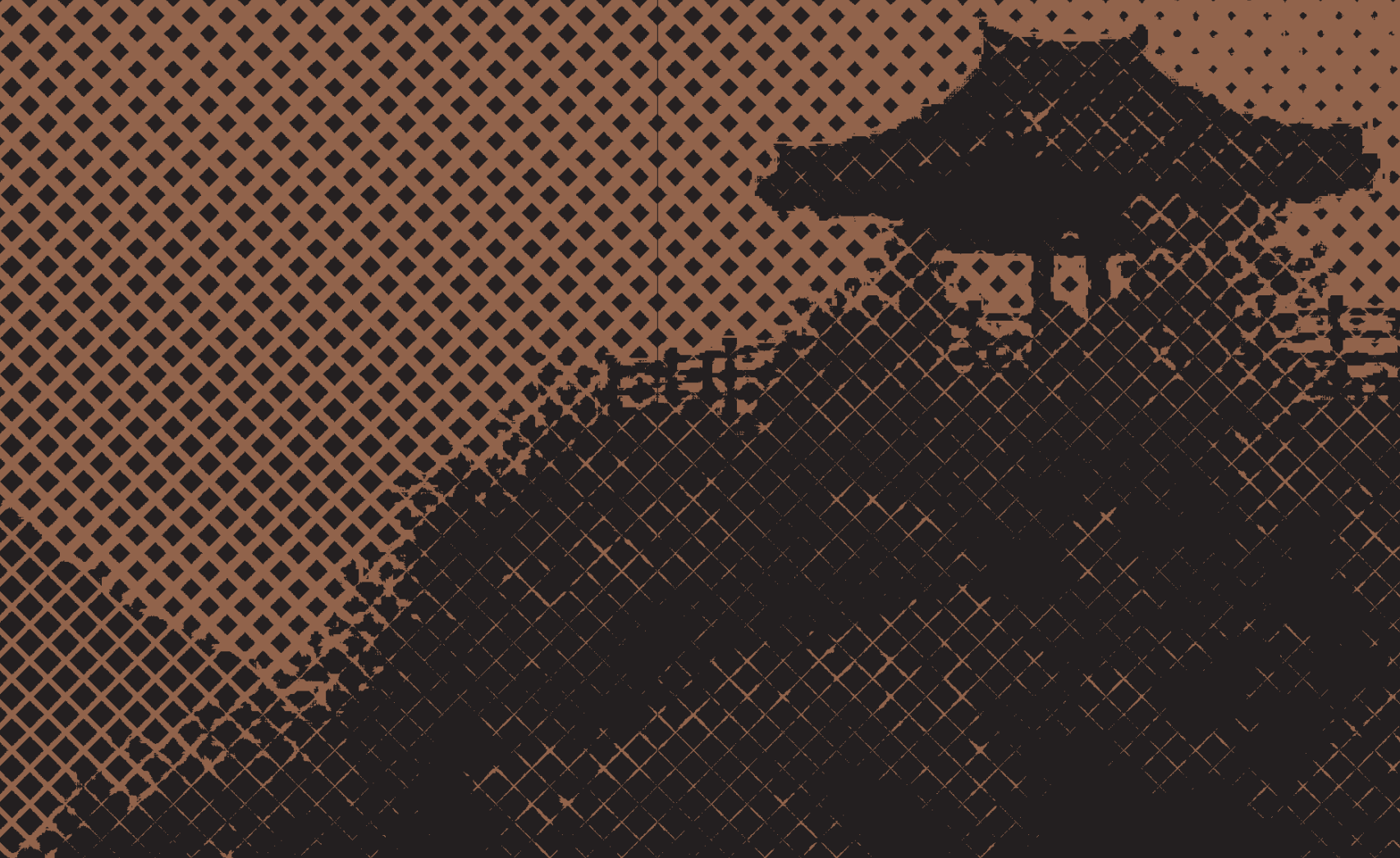


박국태  
다랭이논  
중국, 2019



박문길  
여명  
부산 하일항, 2021

# 청주 지회





**강석규**  
세심정의 하루  
충북 옥천군 청성면, 2015



**박중운**  
용담호의 가을  
진안 용담호, 2019



손찬길  
왕따나무  
보은 원정리, 2017



이한성  
누드  
청주, 2020

# 대한사진예술가협회 창립 75주년기념 전국회원 사진작품집

**발행인** 김호영

**총괄** 주원상

**글** 김석원

**편집** (사)코아스페이스

**디자인** 오퍼센트

**인쇄·제본** 문성인쇄

**발행일** 2022년 1월

**발행처** 대한사진예술가협회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4길 13, 4층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의 저작권은 각 저작권자에 있으며,  
저작권자와 대한사진예술가협회의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할 수 없습니다.